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문화적 자기로 조절된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

이 용 건

청주대학교 학생종합상담센터 연구원

하 창 현[‡]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물질주의 추구에 의해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 추구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적 자기(독립적 또는 상호의존적 자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294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비교 경향성, 물질주의 추구, 주관적 안녕감, 독립적 자기, 상호의존적 자기를 측정하고,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로 조절된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비교 경향성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물질주의 추구에 의해 매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물질주의 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물질주의는 최종적으로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적 자기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립적, 상호의존적 자기의 수준과 관계없이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물질주의 성향을 보이며, 이러한 성향이 낮은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주요어: 사회비교 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물질주의, 문화적 자기관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하창현, (2864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Tel: 010-4642-0023, E-mail: rudtn128@chungbuk.ac.kr

UN에서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56개의 국가 중에서 54위에 해당하지만 국민 1인당 GDP가 27위인 것에 비해 행복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Helliwell, Layard, & Sachs, 2019).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이들 중 39%가 불행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며 응답자들의 57%가 불행한 심리적 고통은 지나친 경쟁 때문이라고 하였다(세계일보, 2019. 8. 31.). 이를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경제적 상황과 사회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행복 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여 이루어진다.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에 관한 스스로의 만족감을 뜻하며 개인의 성장과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Ryff, 1989).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을 의미하며 인지적 안녕감인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녕감인 부정 정서, 긍정 정서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Diener, 1984). 다시 말해,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 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고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보다 직관적인 행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능 수준을 우선하기보다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국인들의 행복에 대한 여러 연구(박응임, 배정인, 이혜상, 안건미, 정운선, 2015; 서봉언, 김경식, 2016; 이윤경, 2018)에서는 개인의 상태나 환

경적인 특성 등의 객관적 지표로 설명되는 요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나이, 성별, 개인의 수입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작았다. 반면, 개인이 가진 기질이나 성격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개인 내적 특성들은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으로 자존감(최민수, 조승현, 2016), 명료한 자기개념(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고통 감내력(박영례, 조성호, 2018) 등이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객관적 지표나 내적 특성들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졌으며, 그 중 내적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직업을 갖거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행위인 사회비교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비교 경향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적으로 상관을 보이기도 하였다(한민, 류승아, 김경미,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사회비교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비교 경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물질주의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 내에서 개인이 가지는 문화적 자기 형태에 따른 매개효과를 차이를 보기위해 사회비교

경향이 물질주의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문화적 자기관(cultural self-construal: 독립적 자기, 상호의존적 자기)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물질주의 성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성향은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비교 경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는 독립적 자기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상호의존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비교 경향과 주관적 안녕감

사회비교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자율적인 과정으로 개인은 사회비교를 통해 사회 기준을 이해한다(Festinger, 1954). 이러한 사회비교는 비교 방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며 자신보다 능력이 좋은 대상과의 비교는 상향비교로,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대상과의 비교는 유사비교로,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대상과의 비교는 하향비교로 정의된다. 사회비교 방향에 따라 비교의 주체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상향 비교를 할 경우에는 부정 정서를 경험하고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며, 하향 비교를 할 경우에는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다(Buunk, Groot Hof, & Siero, 2007; Callan, Kim, & Matthews, 2015; Krizan & Bushman, 2011).

최근 사회비교 연구에서는 비교 방향에 따른

구분보다 사회비교를 자주 하는 성향을 개인 내 특성으로 이해하여 다른 심리적인 특성들과 비교하는 추세이며,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향 비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Buunk & Gibbons, 2007). 사람들은 사회비교를 통해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 우울, 불안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비교는 부정적인 정서들과 관련이 높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음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tzer & Kuiper, 2006; Callan et al., 2015;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사회비교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 상향 비교를 얼마나 자주하느냐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방향보다는 사회비교의 빈도(‘사회비교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의미하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에 관심을 두었다.

그렇다면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은 어떤 관계를 보일까? 한민 등(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은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으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기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비교 경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사회비교 경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지를 검증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가능한 기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물질주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가능한 심리적 기제는 사회비교 이론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의 주체는 자신보다 나은 대상과의 비교 과정에서 불안정감이나 불안감 등의 부정 정서들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특히 다양한 사회비교를 함으로써 다양한 부정 정서와 인지적 어려움을 경험하고(Butzer & Kuiper, 2006) 자기개념에 대한 불확실성(Buuk & Gibbons, 2007)을 보일 수 있다.

한편, 사회비교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감의 경험은 물질주의 추구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Kasser, Ryan, Couchman, & Sheldon, 2004). 물질주의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성공의 지표라 여기며, 물질의 소유가 행복의 목표로 추구되는 동기이자 가치임을 뜻한다(Richins & Dawson, 1992). 이러한 물질주의는 사회비교 경향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선행 연구들(Chatterjee, Kumar, & Dayma, 2019; Kim, Callan, Gheorghiu, & Matthews, 2017)에서는 사회비교와 물질주의 간의 주로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에 대한 상관 연구들은 두 변인의 순차가 상호 다른 방향으로 제시되어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 혼재되어 나타났다(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정혜숙, 이동귀, 2018; 최병섭, 이지연, 2019).

Chan과 Prendergast(2007)는 청소년기 사회비교가 물질주의를 형성하는 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간이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은 친구 관계와 미디어를 통한 사회비교에서 자신을 구성해나간다. 청소년

기 정체성은 내면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기 쉬운데, 특히 물질적 가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쉬워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 확인하는 지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비교와 물질주의의 관계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물질주의 추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Zheng, Baskin, 그리고 Peng(2018)이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사회비교를 통해 유발되는 부정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로 물질주의 추구가 증가함을 밝혔다. 요약하면, 물질주의는 사회비교 경향성으로부터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물질주의는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적인 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관계를 자기결정이론을 통해 주로 설명해왔다(Chen, Yao, & Yan, 2014; Nagpaul & Pang, 2017; Unanue, Dittmar, Vignoles, & Vansteenkiste, 2014).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며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Deci & Ryan, 2000). 행복의 증진을 위한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며,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와 다르게 개인 내에서 불일치감을 유발하며 행복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들이 발견되었다.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개인이 물질에 대해 갖는 기대가 커져 상대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떨어질 수 있으며(Sirgy et al., 2013), 물질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고(Chen, Yao, & Yan, 2014; Nagpaul & Pang,

2017; Unanue et al., 2014), 삶의 의미를 떨어뜨리기도 한다(김경미, 2014).

다시 말해, 물질주의는 사회비교 경향성으로부터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을 보이고 물질주의는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 상관관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물질주의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문화적 자기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정혜숙, 이동귀, 2018), 일부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 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Chan & Prendergast, 2007; Zheng et al., 2018). 이는 연구 참가자 집단 간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상관관계가 높은 연구들과 낮은 연구들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비교해 보았지만,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결과들 간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상관관계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두 연구 집단 간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연구 참가자들의 문화가 있었다. 상관관계가 높은 연구의 경우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으며, 상관관계가 낮은 연구의 경우 홍콩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 MTurk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인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홍콩인의 경우 영미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주의 문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MTurk에 응답한 참가자의 경우 국가를 특정할 수 없으나 홈페이지가 영어로 작성된 점으로 보아 영미권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가 두드러지므로 MTurk은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가 큰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상관관이 작은 연구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집단의 문화적 차이는 비교문화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독립적인 개념으로 영미권 문화에서는 개인주의가 보다 두드러지고 동양권 문화에서는 집단주의가 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주된 인식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이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는 여러 인식에 의해 박혜경과 김상아(2018)가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밝혀졌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세대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한국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연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의 관계를 문화적 자기관이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물질주의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적지만,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자존감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자기가 완화한다고 보고하였다(Zhang & Hawk, 2019). 문화적 자기 개념과 관련된 변인인 상호의존적 자기가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상호의존적 자기와 독립적 자기를 포함하는 문화적 자기가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독립적 자기가 높은 사람은 일반적인 자존감(general self-esteem)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Chung & Mallery, 1999) 잦은 사회비교를 할 경우에도 외적 가치에 흔들리기보다 개인의 내적 동기의 실현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독립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독립적 자기가 낮은 사람보다 물질주의 추구가 덜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Triandis & Gelfand, 1998), 상호의존적 자기가 높은 경우에 더 높은 물질주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문화적 자기와 상호작용하여 물질주의 가치 추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독립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물질주의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상호의존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상호의존적 자기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매개 경로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사회비교 경향성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vs. 낮을)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vs.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물질주의 추구에 의해서 매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높은(vs. 낮은) 사회비교 경향성의 사람들은 물질주의 추구가 높을(vs. 낮을)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낮은(vs. 높은)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가설 3.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 간의 관계는 문화적 자기(독립적 자기, 상호의존적 자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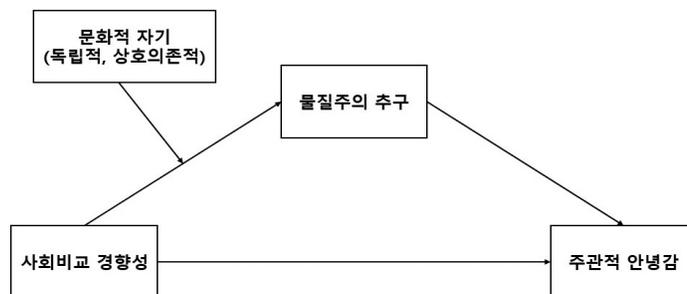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사회비교 경향성의 사람들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독립적 자기가 높은(vs.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감소(vs. 증가)하고, 상호의존적 자기가 높은(vs.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증가(vs.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4.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 추구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 자기(독립적 자기, 상호의존적 자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는 독립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독립적 자기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것이다. 반면,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는 상호의존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고, 상호의존적 자기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절차 및 참가자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 설문 참가에 대한 홍보문을 게시하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받았다.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연구 참가에 동의하는 경우 본 조사의 문항들에 답하였다. 설문은 총 78문항으로, 참가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인구통계적 정보(나이, 성별, 지역, 학력, 직업)에 대한 물음에 답한 뒤, 주관적 안녕감, 사회비교 경향성, 물질주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 문항에 순차적으로 답하였다. 모든 설문이 끝

나면,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 및 가설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았다. 본 연구의 진행 방법 및 측정 도구들은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었다.

참가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였으며, 검증력 80%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의 효과 크기($f = 0.18$; Richard, Bond, & Stokes-Zoota, 2003)를 입력하였다. 그 결과, 245명의 참가자 수를 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을 누락하거나 모집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참가자들이 분석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323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응답을 누락한 참가자와 모집 대상이 아닌 참가자인 29명을 제외한 294명(남성 104명)이 최종 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4.49세($SD = 2.89$)였다.

측정 도구

주관적 안녕감 척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은 인지적 안녕감과 정서적 안녕감으로 구성되며, 인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을, 정서적 안녕감은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안녕감을 선행 연구들에서 측정된 방식을 참고하여 삶의 만족도 척도와 PANAS 척도로 측정하였으며(김효영, 이훈진, 2017; 서수균, 2012; 서수균, 김윤희, 2013), Diener(1984)의 제안에 따라 두 안녕감을 합한 뒤 평균을 계산하였다. 인지적 안녕감은 안신능(2006)이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

한다.’ 등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 (Cronbach’s $\alpha = .84$). 정서적 안녕감은 Watson, Clark, 그리고 Tellegen(1988)이 개발하고 박홍석과 이정미(2016)가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수정된 PANAS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정적 정서 10문항, ‘흥미로웠다’ 등과 부적 정서 10문항, ‘짜증스러웠다’ 등에 5점 척도(1 = 아주 조금/전혀 없음, 5 = 아주 많이 느낌)로 답하였다 (Cronbach’s $\alpha = .82$).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는 최윤희(2003)가 번안한 INCOM(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Gibbons & Buunk, 1999)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의를 지나치게 타인에게 기울여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는 항상 나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Cronbach’s $\alpha = .83$).

물질주의 척도. 참가자들의 물질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하고 유지혜와 설경옥(2018)이 한국어로 번안한 물질주의 척도(Material Value Scale: MV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가자가 물질주의 추구성향을 삶에서 얼마나 주요한 지표로 여기는지를 측정하며, 성공 판단, 소유

중심, 행복 추구로 구분되고 총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등의 문항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여 답하였다(Cronbach’s $\alpha = .88$).

문화적 자기관 척도. 본 연구에서는 Singelis (1994)가 문화적 자기관 연구를 위해 개발한 자기관 척도를 한정연(2008)이 번안한 한국형 자기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인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단일하고 안정적 자기를 뜻하는 독립적 자기관과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며, 개인의 독특성보다 집단의 조화를 추구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으로 구분된다(Markus & Kitayama, 1991). 독립적 자기관은 ‘나는 누구와 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행동한다.’ 등의 12문항으로 구성되고,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나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있다.’ 등의 12문항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여 답하였다(독립적 자기: Cronbach’s $\alpha = .74$; 상호의존적 자기: Cronbach’s $\alpha = .68$).

결 과

기술통계치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

변인에 해당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예측변인인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r = -.26, p < .001$, 물질주의 추구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31, p < .001$. 이를 통해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물질주의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사회비교 경향성은 물질주의 추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r = .36, p < .001$, 상호의존적 자기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23, p < .001$. 이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물질주의 추구 성향이 높으며, 주관적 안녕감을 낮출 것임을 의미한다. 독립적 자기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r = .34, p < .001$, 상호의존적 자기는 주

관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10, p = .09$. 또한 본 연구가설과는 별개로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5, p < .01$.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물질주의 추구에 의해서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예측변인을 사회비교 경향성으로, 결과변인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매개변인을 물질주의 추구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 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1.주관적 안녕감	-	-.26**	-.31**	.34**	.10	3.40(0.56)
2.사회비교 경향성		-	.36**	-.04	.23**	3.45(0.60)
3.물질주의 추구			-	.02	.00	3.04(0.59)
4.독립적 자기				-	.15**	4.41(0.75)
5.상호의존적 자기					-	4.35(0.65)

* $p < .05$, ** $p < .01$.

표 2.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F	R ²
사회비교 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0.246	0.054	-4.591***	21.078***	.067
사회비교 경향성	물질주의 추구	0.352	0.054	6.512***	42.401***	.127
사회비교 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0.164	0.056	-2.932**	19.713***	.119
물질주의 추구	주관적 안녕감	-0.235	0.057	-4.145***		

*** $p < .001$, ** $p < .01$.

Bootstrapping 표본 수는 10,000개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0.352$, $SE = 0.054$ 95% CI [0.2453, 0.4579].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추구도 높아졌다. 물질주의 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0.235$, $SE = 0.057$ 95% CI [-0.3458, -0.1231],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아졌다. 다음으로, 물질주의가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0.082$, $SE = 0.027$, 95% CI [-0.1405, -0.0330].

문화적 자기로 조절된 물질주의 매개효과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 간의 관계가 문화적 자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3과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가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4의 검증을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가설 3의 검증 결과를 <표 3>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 추구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 = 0.363$, $p < .001$,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가 각각 물질주의 추구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적 자기: $B = 0.028$, $p = .51$, 상호의존적 자기: $B = -0.080$, $p = .12$. 또한, 사회비

표 3.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 간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의 조절효과

예측변인	결과변인: 물질주의 추구				
	B	SE	t	R ²	ΔR ²
사회비교 경향성	0.370	0.055	6.694***	0.133***	.133
상호의존적 자기	-0.076	0.051	-1.492	0.133	.133
사회비교 경향성 × 상호의존적 자기	-0.041	0.070	-0.578	.134	.001
사회비교 경향성	0.353	0.054	6.523***	.128	.128
독립적 자기	0.025	0.043	0.580	.128	.128
사회비교 경향성 × 독립적 자기	-0.148	0.060	-2.484*	.146	.018

*** $p < .001$ ** $p < .01$.

표 4. 독립적 자기의 수준에 따른 단순 회귀선 검증

	b	SE	t	LLCI	ULCI
낮은 독립적 자기(-1SD)	.4859	.0758	6.4127***	.3368	.6351
중간 독립적 자기(M)	.3752	.0544	6.9000***	.2682	.4822
높은 독립적 자기(+1SD)	.2645	.0644	4.1082***	.1378	.3912

주. LLCI와 ULCI는 각각 회귀계수의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및 하한 값을 의미함.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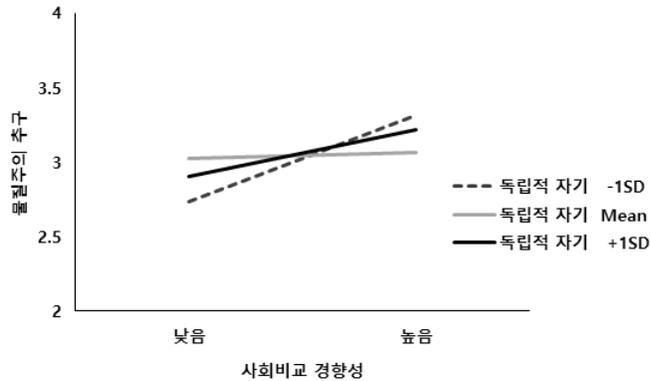


그림 2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독립적 자기의 조절효과

교 경향성과 각 문화적 자기 간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사회비교 경향성 × 독립적 자기가 물질주의 추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B = -0.1480$, $p = .01$, 사회비교 경향성 × 상호의존적 자기가 물질주의 추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41$, $p = .56$. 따라서, 상호의존적 자기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독립적 자기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독립적 자기의 수준에 따라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의 $\pm 1SD$ 수준에 단순 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Aiken & West, 1991).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독립적 자기 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2처럼 독립적 자기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기울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4에 해당하는 문화적 자기의 조절효과가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 경로에도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적 자기를 통해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35$, 95% CI [-0.0010, 0.0790]. 상호의존적 자기를 통해 조절된 매개 지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10$, 95% CI [-0.0370, 0.0451]. 추가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어느 구간에서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Johnson-Neyman 절차(Johnson & Neyman, 1936)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독립적 자기가 $+1.37SD$ 보다 큰 값에 해당하는 영역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s > .05$.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물질주의 추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의 관계를 문화적 자기(독립적 자기,

상호의존적 자기)가 조절하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문화적 자기의 조절효과가 사회비교 경향이 물질주의 추구를 통하여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 추구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도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물질주의 가치가 높았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낮은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졌다.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 간의 관계가 문화적 자기(독립적 자기, 상호의존적 자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상호의존적 자기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으나, 독립적 자기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상호작용하여 물질주의 추구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아질수록 물질주의 추구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독립적 자기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아질수록 물질주의 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 자기(독립적 자기, 상호의존적 자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선행 연구(김경미, 2016; 한민, 류승아, 김경미, 2013)에서 나타났던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구조적인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한국인들의 주관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Chatterjee et al., 2019; Kim et al., 2017)에서 확인된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 간의 정적 상관이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비교 경향성의 증가가 물질주의적 가치 추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가설(Donnely et al., 2016; Zheng et al., 2018)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물질주의 추구하고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Miao, Li, Yang, & Guo, 2018; Nagpaul, & Pang, 2017; Sirgy et al., 2013; Sung, 2017). 문화적 자기에서 독립적 자기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존감과 안녕감이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Krys et al., 2019; Uchida & Oishi, 2016). 또한, 독립적 자기와 유사한 개념인 주체성이 높은 것이 심리적,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결과(한민 등, 2013)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상호의존적 자기의 경우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Markus와 Kitayama(1991)가 기술한 문화적 차이에서 상호의존적 자기를 지향하는 집단주의 문화는 주변인들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을 갖는데, 이때 타인의 외적 가치를 살피면서 비교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으로 인해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자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물질주의 추구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겪는 불안감이나 부정 정서(Butzer & Kuiper, 2006)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질주의를 추구가 높아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Kasser et al., 2004). 그러나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불안감이나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물질주의 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Chen et al., 2014; Nagpaul, & Pang, 2017; Sirgy et al., 2013; Unanue et al., 2014). 즉,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겪는 부정적 결과들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주의를 추구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비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물질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비합리적 신념을 없애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 간의 관계에서 독립적 자기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높은 독립적 자기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물질주의 추구 성향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독립적 자기의 특성인 자기 가치에 대한 지향이 외적 가치에 대한 수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연구에서 독립적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독립적 자기가 높은 개인들이 자기 안정감을 잘 회복하고 물질주

의 추구를 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 자기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독립적인 개념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가 조절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추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독립적 자기가 완충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경향이 최종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독립적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정적 상관을 보였기에, 추가적으로 독립적 자기가 직접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지, 독립적 자기와 사회비교 경향성이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독립적 자기는 주관적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B = 0.251$, $SE = 0.039$, $p < .001$, 사회비교 경향성과 독립적 자기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12$, $SE = 0.055$, $p = .83$. 이를 통해 사회비교 경향이 물질주의 추구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지는 않은 이유가 독립적 자기가 직접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문화적 자기와 관련된 연구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은 서로 상반되었다는 개념과 상호독립적이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박혜경, 김상아, 2018). 박혜경과 김상아의 연구는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

존적 자기가 상반되었음을 지지하는 동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호독립적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두 변인 간의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해 깊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문화적 자기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와 상호존적 자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개념에 대한 정교화와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제적 상황이나 물질적 가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령층에 해당하는 20대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Chan & Prendergast, 2007), 연령에 따라 사회비교 경향성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Callan et al., 2015). 또한, Chaplin과 John(2007)은 연령에 따라 물질주의 추구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호존적 자기가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 추구 간의 관계에서 상호협조적 자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한민 등, 2013)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측정 도구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민 등의 선행 연구는 상호협조적 자기를 측정하기 위

하여 이누미야 등(2007)이 개발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척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는 한정연(2008)이 Singelis(1994)가 개발한 자기관 척도를 번안한 한국형 자기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두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빈도)’에 해당하는 사회비교 경향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비교의 방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선행 연구(Buunk & Ybema, 2003; Liao, 2021)에서는 사회비교 방향에 따라 기분이나, 행복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비교의 세 가지 방향에 해당하는 상향비교, 유사비교, 하향비교 중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비교유형에 따라 물질주의 추구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 경향성과 독립적 자기관의 상호작용이 물질주의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이 결과변인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독립적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상호작용 효과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변인 간 관계가 결과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비교 경향성과 물질주의의 관계에서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나 그와 반대되는 연구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7). 이는 사회비교를 통해 유발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주의 추구가 증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물질주의 추구가 높은 사람이 사회비교를 많이 할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종단 연구를 진행하여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확실히 한다면 본 연구의 의미를 되짚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회비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맥락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얼마나 자주하는지에 대하여 사회비교 경향성을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하여 진행되었다. 실제로 사회비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물질주의 추구 또는 정서나 행복감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비교 경향성 또는 사회비교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의 양상을 인과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25-846.
- 김경미 (2014).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295-314.
- 김경미 (2016).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의 관계: 자기통제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10), 235-257.
- 김효영, 이훈진 (2017). 장노년기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의 관계에서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1), 103-122.
- 박영래, 조성호 (2018). 고통 감내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협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49-62.
- 박응임, 배정인, 이해상, 안건미, 정운선 (2015). 대학생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3), 575-587.
- 박혜경, 김상아 (2018).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3), 5-37.
- 박홍석, 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 (PANAS) 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 서수균 (2012). 공격성 및 분노대처행동과 주관적안녕감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849-867.
- 서수균, 김윤희 (2013). 분노대처행동과 주관적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충족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2), 367-381.
- 서봉언, 김경식 (2016). 한국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6, 91-115.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75-896.
- 세계일보 (2019. 08. 31).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김현주의 일상특독]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31503767?OutUrl=naver>
- 안신능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 이윤경 (2018). 삶의 질 영향요인 추세분석: 상향확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35-72.

- 정혜숙, 이동귀 (2018). 고등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성향의 조절효과. *재활심리연구*, 25(4), 759-773.
- 최민수, 조승현 (2016).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1), 49-63.
- 최병섭, 이지연 (2019). 대학생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4), 1039-1063.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경향성이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민, 류승아, 김경미 (2013). 사회비교와 행복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77-597.
- 한정연 (2008). 대학생의 문화적 자기관 유형과 자기통제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utzer, B., & Kuiper, N.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the frequency of social comparisons and self-concept clar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1), 167-176.
- Buunk, A. P., & Gibbons, F. X. (2007). Social comparison: The end of a theory and the emergence of a field.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2, 3-21.
- Buunk, A. P., Groothof, H. A. K., & Siero, F. W. (2007). Social comparison and satisfaction with one's social lif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 197-205.
- Buunk, B. P., & Ybema, J. F. (2003). Feeling bad, but satisfied: The effects of upward and downward comparison upon mood and marital satisfac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4), 613-628.
- Callan, M. J., Kim, H., & Matthews, W. J. (2015). Age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196-199.
- Chan, K., & Prendergast, G. (2007). Materialism and social comparison among adolesc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5(2), 213-228.
- Chatterjee, D., Kumar, M., & Dayma, K. K. (2019). Income security, social comparisons and materialism: Determinants of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mong Indian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37(4), 1041-1061.
- Chen, Y., Yao, M., & Yan, W. (2014). Materialism and well-being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10), 1232-1240.
- Chung, T., & Mallery, P. (1999). Social compariso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elf-esteem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Psychology*, 18(4), 340-352.
- Civitci, N., & Civitci, A. (2015).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hard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5, 516-523.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Donnelly, G. E., Ksendzova, M., Howell, R. T., Vohs, K. D., & Baumeister, R. F. (2016). Buying to blunt negative feelings: Materialistic escape from the self.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0*, 272-316.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udders, L., & Pandelaere, M. (2012). The silver lining of materialism: The impact of luxury consumption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3), 411-437.
- Johnson, P. O., & Neyman, J. (1936). Tests of certain linear hypotheses and their applications to some educational problems. *Statistical Research Memoirs, 1*, 57-93.
- Jiang, J., Song, Y., Ke, Y., Wang, R., & Liu, H. (2016). Is disciplinary culture a moderator between materialism and subjective well-being?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4), 1391-1408.
- Kasser, T., Ryan, R. M., Couchman, C. E., & Sheldon, K. M. (2004). Materialistic value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In T. Kasser & A. D.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11-28).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m, H., Callan, M. J., Gheorghiu, A. I., & Matthews, W. J. (2017). Social comparison,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and materialism.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6*(2), 373-392.
- Krizan, Z., & Bushman, B. J. (2011). Better than my loved ones: Social comparison tendencies among narcissis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12-216.
- Krys, K., Zelenski, J. M., Capaldi, C. A., Park, J., van Tilburg, W., van Osch, Y., ... & Uchida, Y. (2019). Putting the "we" into well being: Using collectivism themed measures of well being attenuates well being's association with individualism.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3), 256-267.
- Liao, T. F. (2021). Income inequality, social comparison,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Socius, 7*, 237802312098564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iao, H., Li, Z., Yang, Y., & Guo, C. (2018).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ocial Adaptation Among Young Chinese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Self-Concept. *Frontiers in Psychology, 9*, 1067.
- Nagpaul, T., & Pang, J. S. (2017). Materialism lowers well being: The mediating role of the need for autonomy -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1), 11-21.
- Podoshen, J. S., & Andrzejewski, S. A. (2012). An

-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ialism, conspicuous consumption, impulse buying, and brand loyalty.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20(3), 319-334.
- Richard, F. D., Bond Jr, C. F., & Stokes-Zoota, J. J. (2003). One hundred years of social psychology quantitatively describe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4), 331-363.
- Richins, M. L. (1994). Valuing things: The public and private meanings of posses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3), 504-521.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Sirgy, M. J., Gurel-Atay, E., Webb, D., Cicic, M., Husic-Mehmedovic, M., Ekici, A., Herrmann, A., Hegazy, I., Lee, D., & Johar, J. S. (2013). Is materialism all that bad? Effects on satisfaction with material life, life satisfaction, and economic motiv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1), 349-366.
- Sung, Y. A. (2017). Ag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Frugality and Materialism on Subjective Well Being in Korea.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45(2), 144-159.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18-128.
- Tsang, J. A., Carpenter, T. P., Roberts, J. A., Frisch, M. B., & Carlisle, R. D. (2014). Why are materialists less happy? The role of gratitude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4, 62-66.
- Uchida, Y., & Oishi, S. (2016).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the collective.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58, 125-141. doi:10.1111/jpr.12103
- Unanue, W., Dittmar, H., Vignoles, V. L., & Vansteenkiste, M. (2014). Materialism and well being in the UK and Chile: Basic need satisfaction and basic need frustration as underlying psychological process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8(6), 569-585.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hite, J. B., Langer, E. J., Yariv, L., & Welch, J. C. (2006). Frequent social comparisons and destructive emotions and behaviors: The dark side of social comparison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1), 36-44.
- Wong, N. Y. (1997). Suppose you own the world and no one knows? Conspicuous consumption, materialism and self.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4(1), 197-203.
- Zhang, Y., & Hawk, S. T. (2019). Considering the Self in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Materialistic Values: The Moderating Role of Self-Construal. *Frontiers in Psychology*, 10, 1375.
- Zheng, X., Baskin, E., & Peng, S. (2018). The spillover effect of incidental social comparison on materialistic pursuits: The mediating role of envy.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52(5/6),
1107-1127.

원고접수일: 2022년 5월 2일

논문심사일: 2022년 7월 18일

게재결정일: 2022년 10월 19일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Mediation Effect of Materialism Moderated by Cultural Self-Constraint

Youg Gun Lee

Cheongju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Chang Hyun H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ested hypotheses that people with higher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would have lower subjective well-being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would be mediated by materialism. Moreover, we examined whether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materialism tendency might depend on the level of cultural self-construal (independent self, interdependent self). We recruited 294 participants, measured their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materialism tendency, subjective well-being, independent self, and interdependent self, and analyzed the mediation effect of materialism moderated by cultural self-constru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depending o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was mediated by materialism tendency. Specifically, participants with higher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had a higher tendency of materialism. Such higher materialism tendency led to lower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the mediation effect of materialism tendency moderated by cultural self-construal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howed that regardless of the level of independent or interdependent self, people with higher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were related to higher materialism tendency, which led to lower subjective well-being.

Keywords: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ubjective Well-Being, Materialism, Cultural Self-Constraint